



갈수록 거세지는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

은행 Weekly | 2025.11.03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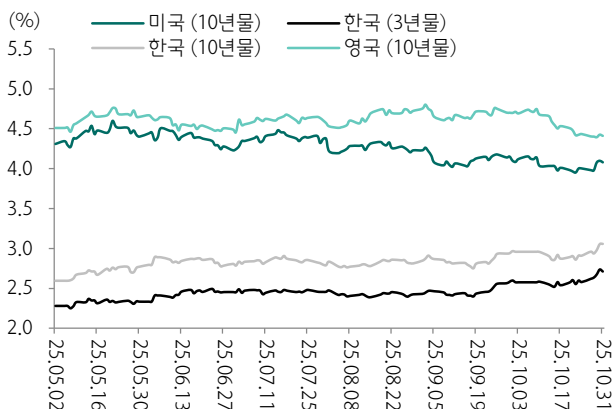
-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면 혁신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이 시급하며 이를 개발하려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하면 가장 먼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5대 시중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10월 말 638조원으로 한달만에 31.8조원 급감 (-4.7%).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은행이 제시하는 연 2%대 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머니무브 때문으로 풀이
- 정부가 '주담대 갈아타기(대환 대출)'에 적용되는 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 LTV도 70%로 유지. 정부의 대출규제로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층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
- 공정위는 11월 전원회의를 열고 4대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예정. 금융권에서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정치적 변수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권 교체 후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커진 만큼 공정위가 제재 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5년 10월 31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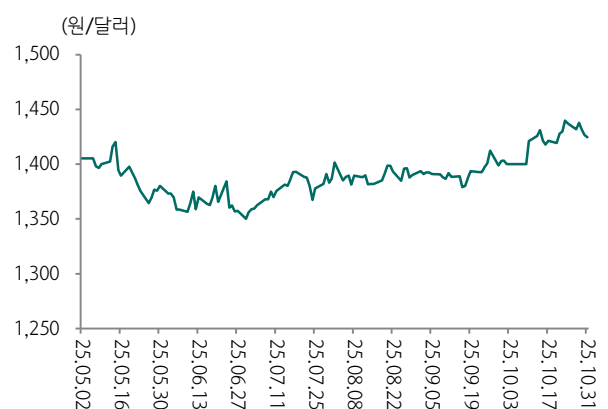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3	27.2	5.6		3,383,468.6	4.2	18.9	31.7	71.2	-1,097.8	-797.7	105.2	1,152.2
은행	0.56	6.4	8.9	0.63	159,742.5	0.1	0.3	7.9	47.4	163.0	-28.7	-246.5	81.0
KB 금융	0.70	7.6	9.5	0.73	44,478.5	2.5	0.3	10.0	40.7	108.1	31.7	-64.4	-43.0
신한지주	0.61	7.5	9.1	0.66	35,586.8	-0.1	4.0	12.6	53.8	52.9	-2.7	-56.4	1.7
우리금융	0.52	5.6	9.5	0.59	18,645.5	-0.4	-2.5	7.6	65.3	8.5	-5.2	-16.4	8.7
하나금융	0.54	5.9	9.2	0.62	23,796.9	-2.8	-1.2	3.9	50.5	13.5	-35.0	-100.2	85.3
기업은행	0.44	5.7	7.8	0.56	15,414.2	-0.4	0.5	3.6	34.9	-6.2	-5.2	-9.7	15.7
BNK 금융	0.40	5.2	7.7	0.54	4,342.2	-2.3	-4.6	0.0	33.6	-13.1	-9.9	5.5	7.8
iM 금융	0.34	4.5	7.6	0.47	2,144.0	-2.4	-2.0	-1.6	61.7	-1.5	-1.5	-3.7	4.7
JB 금융	0.70	6.0	12.2	1.03	4,292.1	1.4	-2.8	3.2	37.9	0.8	-0.9	-1.2	0.1
카카오뱅크	1.61	22.2	7.4	0.75	11,042.3	1.1	-1.7	-14.3	10.0	-2.7	-6.6	-11.9	14.5
삼성카드	0.65	8.7	7.6	2.17	5,740.8	0.3	-2.3	1.2	25.6	0.1	2.1	0.2	-0.1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에도 은행주는 0.1% 상승에 그쳐 KOSPI 상승률 4.2% 대비 계속적으로 큰폭 초과하락.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IT에 이어 자동차업종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의 경우 나름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미한 흐름이 지속. 특히 전주에는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약 2,500억원 가량 순매도하면서 수급 여건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 10월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지만 신중론이 강화되며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 금리동결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며 연준의 매파 인사들은 10월에 금리를 내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 따라서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08%로 한주동안 8bp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58%로 10bp 상승. FOMC 이후 한국도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꺾이면서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 중.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3.06%로 15bp 상승했으며, 3년물 국채금리는 2.72%로 13bp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1,433.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6.4원 하락에 그쳤음. 대미 현금 투자에 대한 부담과 반도체 및 농산물 개방 등 세부사항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하락 폭을 제한하는 듯.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은행주 순매도 강도가 더욱 확대된 점이 특징적인 요인이었음. 외국인들은 지난주 은행주를 약 2,470억원 순매도했는데 특히 하나금융을 약 1,000억원 넘게 순매도. 반면 국내 기관은 은행주를 1,630억원 순매수했고, 은행 자사주 매입분 850억원을 감안해도 순매수 양상이 나타난
- 전주 특징주는 KB금융.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부합, CET 1 비율은 하락한 경쟁사들과는 달리 KB금융은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CET 1 비율도 추가 상승하면서 차별화된 펀더멘털을 보여주었기 때문. 특히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 여건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했음. 반면 하나금융은 1,500억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전후로 낙폭이 커짐.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향안정화되지 않고 있으며 CET 1 비율이 9bp 가량 하락한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그 외 iM금융과 BNK금융도 주가가 2.4%와 2.3% 하락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
-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은행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은행지주사 3분기 전체 순이익은 약 6.9조원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이었던 2분기의 6.8조원을 상회. 물론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관련 여가매수차익 5,560억원을 제외한 실질 순이익은 약 6.3조원으로 대부분 은행들의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한 반면 KB금융과 BNK금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시현했음. 하나금융과 신한지주, iM금융은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했음에도 CET 1 비율이 QoQ 하락한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것으로 평가. 은행지주사 3분기 전체 대손비용은 약 2.5조원으로 QoQ 15% 가량 감소한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시중금리와 환율 상승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순이자이익 증가와 대손비용 감소가 이를 상당폭 만회했다는 점에서 경장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
- 중시에 주도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업종간 수익률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은행주의 경우 생산적 금융과 각종 규제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근까지는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강화되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최근 2주간 외국인들이 은행주 순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수급 불안 현상이 커지고 있음. 이는 밸류업 우려 또는 은행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는 모멘텀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관심과 순매수 규모가 커지다보니 은행주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 저하 및 주도주 비중확대 과정에서의 은행주 비중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자본비율 우려와 과징금 불확실성 등으로 은행주는 주도섹터 대비 모멘텀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현 은행 평균 PBR 0.56배로 가격매력은 높지만 불확실성 등이 어느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수급상 상대적인 피해가 지속될 여지는 있는 상황
- 주요 언론에 따르면 홍콩 ELS 과징금 및 은행 LTV 담합 의혹 과징금과 관련한 금감원과 공정위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1월 중 개최되는 것으로 보도. 최종 과징금 부과는 2026년경 이루어지겠지만 11월에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날 전망.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라도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무튼 과징금 규모의 대소와는 별개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결과가 조기에 확정 발표되는 것이 은행주 투자심리 개선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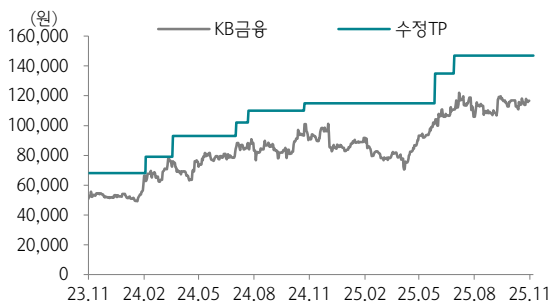
KB금융(매수/TP 147,000원), BNK금융(매수/TP 19,000원)

- KB금융은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크게 좁혀지면서 가격 매력이 다시 커졌다고 판단. 홍콩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은행으로 그만큼 과징금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과징금 부과 규모는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BNK금융은 일회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호실적 시현. 건전성 회복으로 향후에도 대손비용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총주주환원을 상승 폭도 은행 중 가장 커질 전망

Global Peer Table						(2025년 10월 31일 종가 기준)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3	27.2	5.6		3,383,468.6	4.2	18.9	31.7	71.2
은행	0.56	6.4	8.9	0.63	159,742.5	0.1	0.3	7.9	47.4
KB금융	0.70	7.6	9.5	0.73	44,478.5	2.5	0.3	10.0	40.7
신한지주	0.61	7.5	9.1	0.66	35,586.8	-0.1	4.0	12.6	53.8
우리금융	0.52	5.6	9.5	0.59	18,645.5	-0.4	-2.5	7.6	65.3
하나금융	0.54	5.9	9.2	0.62	23,796.9	-2.8	-1.2	3.9	50.5
기업은행	0.44	5.7	7.8	0.56	15,414.2	-0.4	0.5	3.6	34.9
BNK금융	0.40	5.2	7.7	0.54	4,342.2	-2.3	-4.6	0.0	33.6
IM금융	0.34	4.5	7.6	0.47	2,144.0	-2.4	-2.0	-1.6	61.7
JB금융	0.70	6.0	12.2	1.03	4,292.1	1.4	-2.8	3.2	37.9
카카오뱅크	1.61	22.2	7.4	0.75	11,042.3	1.1	-1.7	-14.3	10.0
삼성카드	0.65	8.7	7.6	2.17	5,740.8	0.3	-2.3	1.2	25.6
미국									
S&P 500	5.32	25.6	18.9	4.66	60,574.0	0.7	2.3	8.2	16.3
은행	1.59	13.6	11.6	1.05	2,049.6	1.8	-0.3	6.7	22.3
Wells Fargo	1.65	14.7	12.2	1.06	273.0	0.6	3.8	8.5	23.8
JPM	2.46	15.5	16.6	1.29	855.5	3.6	-0.9	5.5	29.8
CITI	0.92	13.0	7.5	0.59	186.4	2.5	-0.3	8.7	43.8
BOA	1.40	14.1	10.5	0.89	390.3	1.7	3.6	13.7	21.6
US Bancorp	1.26	10.3	12.9	1.09	72.6	-3.3	-3.4	4.9	-2.4
PNC	1.33	11.5	12.2	1.14	71.9	-2.1	-8.3	-3.2	-5.3
BB&T	0.94	11.3	8.6	0.98	57.1	1.0	-2.4	3.3	2.9
중국									
상해A주지수	1.46	15.5	9.6	1.39	62,336.6	0.1	2.0	11.1	18.0
은행	0.74	7.8	9.6	0.72	12,436.0	-1.3	8.4	3.7	14.5
공상은행	0.71	7.7	9.3	0.71	2,576.4	-0.8	6.6	2.9	12.4
건설은행	0.70	7.0	9.9	0.80	1,889.9	-2.5	6.0	-3.0	3.9
농업은행	0.98	10.1	9.9	0.63	2,707.9	-0.4	19.3	26.3	49.1
중국은행	0.68	7.6	8.9	0.67	1,675.7	1.4	8.3	1.1	1.8
교통은행	0.54	6.6	8.3	0.62	604.5	-0.7	6.8	-6.1	-7.6
초상은행	0.90	7.0	13.2	1.19	1,048.2	-2.5	1.2	-8.1	4.0
일본									
NIKKEI	2.62	24.6	10.1	3.20	853,602.1	6.3	16.6	28.6	31.4
은행	1.08	12.7	8.1	0.38	89,014.5	3.8	-0.7	12.2	25.2
Mitsubishi UHF	1.26	12.7	10.2	0.60	28,117.8	4.3	-3.9	12.1	26.2
Sumitomo Mitsui Financial	1.04	11.4	9.5	0.53	16,058.4	3.2	-0.3	9.8	10.6
Mizuho	1.16	12.0	10.2	0.40	12,820.2	5.4	3.2	16.6	32.9
Sumitomo Mitsui Trust	0.93	10.2	9.5	0.40	2,984.5	2.7	-1.6	8.4	14.7
유럽									
MSCI Europe	2.22	16.5	12.6	1.57	13,964.5	-0.6	2.6	5.4	12.5
은행	1.25	10.1	12.3	0.65	1,644.5	3.8	1.4	8.8	48.1
HSBC	1.40	10.0	12.7	0.74	182.9	5.9	1.8	16.1	35.4
Santander	1.31	10.0	13.3	0.77	131.4	6.8	0.8	18.7	97.7
BNP Paribas	0.63	6.6	9.6	0.41	74.9	-2.1	-13.3	-13.4	13.2
Credit Agricole	0.66	7.3	9.7	0.26	47.7	-4.3	-6.5	-3.2	17.7
Deutsche	0.91	10.4	8.8	0.46	60.3	7.0	3.1	7.2	86.0
Unicredit	1.50	9.7	16.5	1.25	99.7	4.4	-0.7	-0.9	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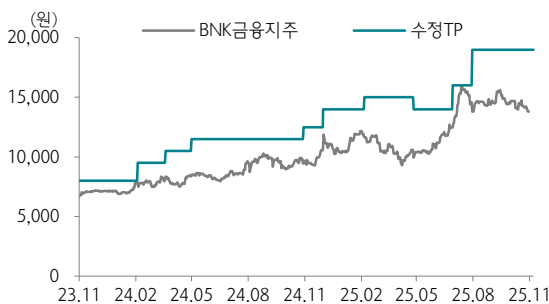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6.30	BUY	147,000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23.9.11	BUY	68,000	-20.92%	-2.50%

BNK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8.1	BUY	19,000		
25.6.30	BUY	16,000	-7.88%	-0.31%
25.4.28	BUY	14,000	-20.70%	-9.21%
25.2.7	BUY	15,000	-28.96%	-21.27%
24.12.2	BUY	14,000	-20.72%	-13.14%
24.10.31	BUY	12,500	-22.39%	-15.52%
24.5.2	BUY	11,500	-21.47%	-10.52%
24.3.21	BUY	10,500	-24.31%	-19.33%
24.2.5	BUY	9,500	-17.50%	-12.21%
23.4.5	BUY	8,000	-13.74%	-1.63%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1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5년 11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41%	4.59%	0.00%	100%

* 기준일: 2025년 10월 31일